

 국토교통부		보도해명자료	
		배포일시	2019.1.26(토) / 총2매(본문2)
담당 부서	부동산평가과	담당자	• 과장 한정희, 사무관 김세묵 • ☎ (044) 201-3425
	한국감정원	담당자	• 주택공시처장 박철형 • ☎ (053) 663-8220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기사에서 보도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사례는 모두 시세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입니다.

- 1.26(토) 매일경제에서 “정부말과 달리 중저가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급등했다” 는 보도가 있었습니다.
- 이 기사와 관련하여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결과 기사에서 보도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사례*는 모두 시세 15억 원 초과 주택이며,
 - * 마포구 연남동·망원동, 용산구 이태원동, 강남구 역삼동 사례
 - 그동안 시세가 급등했으나 장기간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불균형 문제가 심했던 주택입니다.
- 또한, 구로구 구로동 xxx-8번지 사례는 주택의 면적이 증가하여 공시가격이 증가한 것으로 현실화율 제고로 인해 상승한 것이 아니며,
 - 구로동 xxx-x7번지 사례는 기사에 따르면 ‘19년 공시가격이 2.82억 원으로 되어 있으나, 확인 결과 실제 2.53억 원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은 8.1%입니다.
- 국토부는 최근 발표한 바와 같이, 최근 가격이 급등하였거나,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 제고하고, 서민 부담을 고려해 중저가(시세 15억 이하)는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매일경제, 1.26.) >

◆ 고가만 타깃, 정부말과 달리 공시가격 3억~5억 주택도 급등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김세목사무관(☎ 044-201-34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